다산포럼

우리도 세계적 콩쿠르와 음악회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불과 열여덟 살인 임윤찬이 지난 20일 미국의 밴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거둔 역대 최연소 우승은 한국인의 천재성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린 쾌거였다. 전 대회인 2017년에도 선우예권이 우승했으니 한국인이 2연패(連覇)를 한 셈이다. '10년 주기 피아노 천재설'이 있다는데, 1984년생 임동혁, 1994년생 조성진에 이어 2004년생 임윤찬이 그 계보를 이었다. 임동혁은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형 임동민과 함께 공동 3위를 했고,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젊은 음악인들의 입상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에 벅차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의 경우 1990년 바리톤 최현수가 성악 부문 1등을 했다. 2011년엔 남자는 베이스 박종민, 여자는 소프라노 서선영이 나란히 우승했고, 손열음이 피아노 부문에서 2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3일 영국 카디프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기훈이 우승하더니 다음 날 이탈리아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박재홍 김도현이 1·2위를 했다. 부조니 콩쿠르의 경우 1969년 백건우(격려상에 해당하는 메달 수상) 이후 서혜경과 이윤수가 1위 없는 2위, 손민수 조혜정 임동민 김혜진 원재연 등이 우승하거나 2~3위에 올랐다.

올해에는 5월 29일 양인모가 장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이어 6월 4일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 브뤼셀)에서 첼리스트 최하영이 1위에 뽑혔다.

국제 콩쿠르 우승 제1호는 1965년 레벤트리트 콩쿠르(1941~1981년 운영)의 피아니스트 한동일(81)이다. 2년 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우승했다. 언니에 이어 정명화가 1971년 제네바 콩쿠르 첼로 1위, 남동생 정명훈이 1974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하는 등 정 트리오는 세계적 음악 가족으로 유명해졌다. 또 1976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의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등 입상자가 수없이 많다. 홍혜경 신영옥 조수미는 세계적 소프라노다. 2006년 영국 리즈 콩쿠르 우승자 김선욱, 2015년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문지영은 임윤찬처럼 유학 경험이 없는 피아니스트다.

이제 한국은 BTS로 대표되는 대중 음악은 물론 클래식계에서도 세계적 강국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주목해 '초강대국 남한'(Supermacht Sudkorea)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공영 라디오 도이칠란트풍크는 지난해 9월 한국 참가자가 연단에 오르지 않는 국제 콩쿠르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인 음악가들의 성장 원동력으로 사회 전반의 충분한 투자, 자녀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는 부모들의 열정을 언급했다.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세계적 콩쿠르를 만드는 것이다. 코리아 콩쿠르가 됐든 '선구자' 한동일의 이름을 딴 콩쿠르가 됐든 멋진 대회를 열자. 부조니 콩쿠르를 주최하는 페루초 부조니·구스타브 말러 재단이 한동일 백건우 진은숙 김대진 이미주 손열음 손민수 등을 계속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만큼 한국 음악가들의 심사 역량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 하나는 명품 음악회를 만드는 것이다. 매년 새해가 되면 세계는 빈 필하모니의 신년 음악회에 갈채를 보낸다. 1939년 송년 음악회(12월 31일)로 시작한 이 공연은 1941년부터 매년 1월 1일 열려 세계적 명품이 됐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무대를 만들자. 빈처럼 신년 공연이 좋겠지만 송년 음악회를 해도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런 기획은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는 역대 정부가 늘 약속만 해 온 다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예술의전당 신년 음악회처럼 '국가의 풍악 행사'가 되면 안 된다. 공연 장소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 좋겠다.

기 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김석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아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니기 힘들다면서 했던 말이다. "그럼 너는?" 다시 되돌려 질문을 하였다. "유치원 때로 가볼까 해요, 그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빠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이 좋아" 다시 생각해 보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다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이고 자기 나이의 오늘도 한 번뿐이다. 평균 수명을 84세(2020년 한국인 평균 수명 83.5세)로 계산하면 인생을 사는 날은 3만 660일이다. 그중에 하루인 오늘 20살인 사람은 7300일째 날, 55살인 사람은 2만 75일째 날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각기 다른 인생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가슴 벅차게 보내야 한다. 이미 보낸 과거의 그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지난 시간을 충실하게 잘 보낸 사람은 지나간 시간으로부터 보상과 선물을 받을 것이고,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고 낭비를 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에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는 영어 단어로 'PRESENT'이다. 신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평하게 주어진 3만 660일 인생 중에서 불과 하루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 그리워하고 동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도 현재를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이나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하며 현재를 등한시하는 삶보다는 현재에 주어진 길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대부분 사람은 주어진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삶의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살아간다. 직장인들은 밀려오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시간이 남으면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긴급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처리하기도 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 때문에 현재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삶의 중심에는 자신과 가족이 있다. 일은 삶의 일부분일 뿐 삶과 일을 혼동하면 안 된다.

'지금은 승진과 성공을 위해 더 달려야 하니깐 가족은 나중에 챙기면 될 거야' '이번 사업 아이템이 반응이 좋으니 내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될 거야' 물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직장일과 사업에서 성공을 이끌기 위한 오늘이 중요하지만, 자신과 가족에게도 오늘이 중요하다. 자신과 가족이 성공을 위한 일들의 희생물이 된다면 다시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과 삶이 서로에게 나중으로 미루는 희생의 대상이 아닌 서로에게 균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을 맞이하며 그냥 어제와 같은 평범한 오늘로 살아가면 안 되며, 선물로 받은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의 승패가 모여서 우승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미루고 있지 않은가? 그 일을 바로 지금(Right now) 해야 한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세 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이고 정답은 '현재' '바로 지금'이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한 번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자신이 없어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다.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일 앞에서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앞에는 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다고 한다. 혹시 하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그때 그 일을 해 볼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지금 가슴 한 편에 미루어 둔 일이 있으면 꺼내서 도전하길 바란다. 그럼 언제 해야 하지요? 바로 지금!

※위 기고문은 '퇴직미않'(나는 퇴직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김석 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기 고

역대 최저 투표율의 의미

유동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활동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광주 시민들의 민심도 바뀌었다. 광주의 정당 판세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37.7%로 전국 평균 50.9%에 한참 못 미쳤다.

광주광역시의 역대 투표율을 살펴보면 1회(1995년) 64.8%, 2회(1998년) 45.1%, 3회(2002년) 42.3%, 4회(2006년) 46.3%, 5회(2010년) 49.8%, 6회(2014년) 57.1%, 7회(2018년) 59.2% 등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언론에선 일당 독점의 폐해, 무투표 당선 속출, 공천 잡음, 정치 무관심, 대선 패배 후유증, 정책 실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특히 광주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탓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정당 후보들 간 경쟁력이 떨어지며 투표율도 함께 떨어졌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는 광주 정치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 부재가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투표 당선자의 속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원인 중 하나이다. 광주시의회의 정원 의석 23석 중 지역구 의원의 의석은 20석으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6.9%에 육박한다. 이 20석 중 절반이 넘는 11석(55%)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리고 광주 5개 구 중 광산구청장도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나마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단독 입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단독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에는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해당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직 선거 출마자는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게 된다.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투표 당선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정치인은 대중의 선택과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된 37.7%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다. 비단 물 뿐만이 아니라 광주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민심이 보여 준 역대 최저 투표율의 의미를 되새겨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들의 개혁 의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죽음 부르는 학교폭력 악순환 이젠 끊어 내야

친구를 1년여 동안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고등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최근 공동 폭행·강제 추행·상습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군 등 고교생 열 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다섯 명에게 단기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세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또 다른 두 명에게는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까지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가해자들은 고교 1학년이던 2020년 6월 중순부터 B군을 1년 여 동안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매일 폭행했고 때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 폭행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간 존엄을 짓밟았다. B군 친구들이 주범 A군에 대해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동물 대하듯 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고통에 신음하던 B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닌 게 너무 서러웠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6월 숨졌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B군이 절명한 이후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광주 지역 초중고에서 1148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학교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자와 신고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숨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를 문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고음 커지는 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대비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감소세가 크게 둔화돼 '여름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 실내 에어컨 사용 등이 재유행을 촉발할 요인으로 꼽힌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지난 4월 말 8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중순 2000명대로 급증했고 지난 23일에는 1400명대를 기록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이달 초를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행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폭이 점점 둔화돼 재유행에서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697명(6월 4~10일)→7717명(6월 11~17일)→7062명(6월 18~24일) 등으로 감소 폭이 작아졌다. 특히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는 7227명으로 1주 전보다 오히려 32명 늘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최근 BA.2.12.1, BA.4, BA.5 등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유입된 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코로나19 4차 유행을 겪었다. 백신 접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면역력이 저하됐고, 백신 회피력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점도 악재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에 대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에 맞춰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감염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과 냉방기기 사용 시 주기적인 환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핸드메이드

"내가 만든 명품 같은 느낌이다. 기존 상업용 맥주와는 풍미(風味)가 다르고, 깊고 진한 그 맛을 내 손으로 만들어 내는 희열이 있다."

장성군 북하면 별내리마을 오덕수(49) 사무장은 지난해 꼬박 1년간 강원도 홍천군을 오가며 수제 맥주 만들기 공부를 했다. 호프(Hop)와 맥아(Malt)를 이용해 직접 에일(ale)맥주와 흑맥주, 밀맥주 등 다양한 맥주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비록 거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큰 뜻'을 품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오갔다. 그는 농부가 직접 만든 수제 맥주로 새로운 농업·농촌 시장을 개척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내 손으로 뭔가를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Handmade·手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집콕'을 하면서 수제 공방이나 원데이 클래스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관심 분야는 목공예와 뜨개질, 수제 맥주, 오디오 앰프, 생활 자기 등 다양하다. 취미 단계에서 '덕업일치'(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음)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 미국 '엣시'(etsy), 한국 '아이디어스'(idus), 광주 '모람(moram) 플랫폼'과 같은 수공예품 전문 플랫폼도 활성화됐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는 수공예품 공방이 하나둘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전문 거리를 형성했다. 지난 26일 폐막한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와 같은 수공예품 관련 축제도 전국에서 열린다.

'핸드 메이드' 수공예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공산품과 다른 '온기'를 품고 있다. 게다가 두 손으로 깎고 다듬거나,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정성을 다해 만든 수공예품은 세상에 오로지 하나뿐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직립 보행을 하며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다. 손끝에서 예술과 과학 문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의 인간'(Homo Faber)으로도 불린다. 요즘의 '핸드메이드' 열풍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물결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본성 찾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